

보도시점 2026. 8. 7.(금) 11:00 배포 2026. 8. 7.(금) 09:00

박홍근 장관, 국가재정시스템 운영현황과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 개인정보 유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보안 태세 점검
- 12월 오픈 예정인 「모두의 재정」 차질없는 구축 당부 등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7일(금)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하여 업무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실무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획예산처의 유일한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일선 실무 현장을 찾아 국가재정 운영의 핵심 기반인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관리현황 및 정보보안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현장점검 개요 >

- 일시/장소 : '26.8.7(금), 10:00 ~ 11:00 / 한국재정정보원
- 주요내용 : dBrain · e나라도움 시연 및 운영안정성 점검,
개인정보보호센터 · 사이버안전센터 관리현황 점검
- 참석자 : (기획처) 박홍근 기획처 장관, 미래전략기획실장 등
(재정정보원) 윤석호 재정정보원 원장 및 임직원

박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모든 과정이 디브레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운영의 안정성은 한 순간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라고 재정정보원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AI 시대를 맞아 사이버 위협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보안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라고 정보

보안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특히 “디브레인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작은 관리 소홀도 국민 신뢰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재정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2월 공개 목표로 구축 진행중인 「모두의 재정*」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현행 「열린재정」을 고도화하여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온라인 재정박물관' 신설 등 학습과 AI기능 등을 포함한 「모두의 재정」으로 개편 계획

박 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 실무 직원들의 24시간 관제 업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재정운용의 기반을 떠받치고 있는 업무에 사명감을 갖고 임할 것을 당부하고 격려하였다.

기획예산처는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앞으로도 국가재정운용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체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열린재정정보과	책임자	과 장	문진주 (044-214-1950)
		담당자	사무관	이성민 (sm718@korea.kr)